

0. 니체의 철학사상 훑어보기

(1) 니체의 철학적 문제의식 :

니체의 철학적 과제는 서구형이상학을 대표하는 플라톤주의와 그에 따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신은 죽었다.”의 최고 가치의 몰락과 파괴로 인해 인간적 실천과 대상의 목적과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허무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소극적/수동적 허무주의 : 근대 합리주의의 문화의 도구적 합리성의 우상 숭배로 ‘목적과 수단의 가치 전도’가 발생하여 생긴 허무주의이다. 인간의 도구화와 예속 등 현실의 허무와 소외에 직면하기를 피하고 현실적 무력감과 공허감을 차나적인 향락주의나 사소한 쾌락주의, 무관심한 이기주의적 삶으로 채워보려는 소모적인 허무 도피적 삶의 태도이자 행동 방식이다. 이는 허무의 본질을 막연히 예감만 할 뿐 직면할 수 없게 되고, 허무주의의 극복도 끝없이 연기됨으로써 그것의 극복이 요원한 삶의 방법이다.

-적극적/능동적 허무주의 :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무(無)를 갈망하는 삶의 태도이다. 근거 없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신은 죽었다.”를 선언한다. 하지만 최고 가치의 전환, 새로운 가치의 생성과 실현, 허무를 인생의 적극적인 창조 원리로 전환시켜 허무의 심연을 초월해 나가지 못하고 무에 안주한 상태이다.

(2) 니체의 존재론 :

‘힘에의 의지’(‘권력에의 의지’/권력의지; Der Wille Zur Macht/Will to power)

‘삶(Leben)에의 의지’ 니체는 모든 존재자의 본질을 물질이나 정신이 아닌 생명의 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규정한다.

니체적 의미의 권력/역능/힘이란, 생명에서 부단히 솟구치는 근원적인 내적인 힘이고, 의지란 힘을 지향하는 성향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지가 구성해낸 구성물인 대상을 인식한 내용이 아니라 인식한 대상에 대한 힘과 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능동적 힘이나 반응적/수동적 힘이냐, 긍정적 의지나 부정적 의지나 하는 것이 대상과 관계맺는 인식내용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의지와 능동적 힘을 대표하는 인간상이 바로 자유정신을 구현한 초인, 디오니소스이다.

(3) 니체의 인식론 : 관점주의(Perspektivismus; perspectivism) :

“사실은 없고 해석만이 존재한다.” “진리는 없다. 관점만이 있을 따름이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다양한 관점의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달리 보면, 세계를 보는 관점과 해석의 불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진리는 없고, 진리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힘으로서의 진리의지만이 있다.”,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오류이다.”, “세계는 무한히 해석이 가능하다. 모든 해석이, 생장의 징후이거나 몰락의 징후인 것이다. 통일일원론은 타성(惰性)의 욕구이며, 해석의 다수성이야말로 힘의 징후이다. 세계의 불안하고 혼미한 성격을 부인하고 싶어해서는 안된다.”

(4) 니체의 인간관 : 주인 대 노예(의 덕/삶의 방식)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매인 밧줄-심연 위의 밧줄, 위험한 교차, 위험한 도중, 위험한 돌아봄, 위험한 전율과 멈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21쪽)

☞ 인간은 초인으로 건너가는 밧줄이자 줄타기 곡예사(어릿광대), 삶은 줄타기이다.

-**주인의 도덕** : 주인은 선(善)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 있는 가치의 창조자, 가치의 결정자를 뜻하며,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은 주인의 덕이다. 주인의 도덕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풍요로운 힘에 근거해서 타인의 약함과 불행에 대해 숫구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다.

-**노예의 도덕** : 노예는 선의 근거가 타자에게 있고 자기 스스로의 역능에 의거하지 않고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 자이다. 노예의 덕목은 동정, 인내, 박애 등이다. 노예의 도덕은 기독교의 도덕처럼 고통과 불행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연민과 동정을 통해 불행과 고통을 줄이는 행위만을 실천한다.

- ‘초인(超人, 위버멘쉬; Übermensch)’ : 차라투스트라(금지 높은 독수리와 영리한 뱀)의 핵심사상 두 가지는 ‘영원회귀’와 ‘초인’이다.

니체의 초인은 창조의 원동력인 삶의 원초적인 충동과 걱정(pathos)과 의지가 숫구쳐서 끊임없이 현재의 자기를 넘어서 창조해나가는 인간상이다. 탈각하는 자기극복 노력의 모습. 이성적 계산적 합리적 사유의 삶을 넘어서 감성적 예술적 실재적 삶으로의 전환.

아폴론 대 디오니소스 ; 행복 대 행복을 넘어서 : 쾌락원칙 대 쾌락원칙을 넘어서

1. 니체의 사상이 숨겨진 이유

(1) **출판상의 이유들** : 니체 누이 엘리자베스가 유고 노트들에 가한 오도된 편집과 가필 - 『권력의지』와 날조된 편지들

(2) **병리적 이유들-니체의 광기에 의한 갑작스럽게 중단된 저작들** : 영원회귀와 권력의지라는 두 근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게 됨. 그의 작품의 일부를 이루는 니체의 광기는 다른 자아를 개방시킨다. 다시 말해, 자아 동일성 보증자인 신 존재의 죽음과 상실로 인해 이제 자아 동일성은 소멸되어 사라짐으로써 자아는 자아를 가로지르는 계열의 수만개의 우발적인 사건들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는 다른 자아에, 다른 역할과 인격에 개방되게 된다. 니체의 다원주의, 가면의 심리학, 가면의 유형학의 근원.

(3) **방법론적 이유-관점주의/원근법주의** :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해석 방법을 발명함. 해석만이 있다. 모든 것은 해석에 대한 해석이라는 의미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니체에게 모든 해석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도, 동일한 평면 위에 있지도 않다. 반대로 해석은 새로운 깊이 속에서 층을 이루며 쌓여 있거나 또는 서로 끼워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해석은 이제 기준으로서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소유하기를 멈춘다. 그 대신 고상한 것과 천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해석과 가치 평가의 내재적인 원리를 이루게 된다. 말하자면 논리학이 위상학과 유형학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유하고 느끼는 행위, 심지어는 존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낮거나 천한 방식을 전제하는 해석이 존재하는 반면, 이와 반대로 고상한, 관대함, 창조성……을 증언하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석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석하는 자의 “유형”을 판단하게 되며, 또 이런 이유로 해서

해석은 “누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 위하여 “무엇?”이라는 질문은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진리를 “물리치도록” 해주며, 참된 것 또는 거짓된 것의 배후에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급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니체적 가치의 개념이다. [중략] 만약 이처럼 모든 것이 가면이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해석이며 가치 평가라면, 더 이상 해석할 것도, 평가할 것도, 가면을 씌울 그 어떤 것도 없는 최후의 심급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최후의 심급에는 그 자체가 돌변의 역능, 가면들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능,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역능인 권력의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바티모[1936~,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정치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우리가, 니체 철학의 핵심이 되는 두 측면인 기존의 모든 가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즉 신화와 기만으로부터의 해방과 가치의 전환을 시원적인 존재론적 깊이에-“모든 동굴의 배후에 있는 동굴”에, “모든 바탕 밑의 심연”에-연관시킨다면, 결코 이 두 측면은 의식이 제안하는 단순한 상태[플라톤-데카르트적인 형이상학적 제안들] 속에 포함될 수도 없고 다시 빠지지도 않는다.

이 같은 시원적인 깊이, 짜라투스트라의 그 유명한 우월한 깊이가 우리가 권력의지라고 불러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권력의지”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로[1918~1990, 프랑스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린다. 그것은 살기를 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 자신이 곧 생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생명이 살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지배의 욕구와도 관계가 없다. 그 자신이 곧 지배자인데 도대체 어떻게 지배자가 지배하기를 욕구할 수 있단 말인가?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과연 누가 지배의 욕구를 욕구라고 부르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의지는 결코 권력을 원하는 의지 또는 지배하기를 욕구하는 의지가 아니다.” (223~225쪽)

☞ 본질의 물음에서 계보학적 물음으로의 전환 :

니체가 바라본 인간의 세계는 사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힘들이 서로 능동적이거나 반응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한 인식과 실천의 대상이나 주체(실체들/차이들)를 부단히 생성하고 해체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생각하는가?”, 혹은 “어떤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어느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본질에 대한 물음은 논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접근이 아니라 결국 질문이 전제하는 것의 동어반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가’를 물었을 경우에 ‘누가’란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주체나 자아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인식하도록 한 여러 힘들의 관계나 주체의 의지나 의도의 성격을 말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힘에의 의지, 즉 권력의지의 성격이 긍정적인 의지이나 부정적인 의지이나 혹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인지 반응적이고 소극적인 의지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2. 니체철학의 핵심 내용

가. 니체 철학의 핵심 :

- ① 기존의 모든 가치에 대한 비판 : 신화와 기만으로부터의 해방
- ② 새로운 가치의 창조 : 가치의 전환

나. 니체의 인식론 :

각각의 관점과 조망이 다 다르다 : 사물은 없고, 특정한 관점에 의한 조망만 있다. 사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로 지칭되는 그런 사물은 없다는 뜻이다. 사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참, 거짓도 없다. 재현하거나 의미화할 수 있는 고정된 사물이 있을 때 그것의 참모습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해석의 해석만 있는 것이다.

① 플라톤의 인식론 :

진리에 접근. 불완전한 인식을 보완하는 이데아(사물의 참모습) ; 참, 거짓 판단의 준거는 이데아 → 논리학

② 니체의 인식론 : 해석(가면) - 해석의 해석 :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등 해석의 해석만 있다.

→ 위상학/유형학 : 해석의 유형 차이만 존재한다. 높은 것/심오(우월한 힘)와 낮은 것/얕은 것(열등한 힘)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해석의 기준이 바뀔 뿐이다.

*내게 비친 사물의 상은 그 너머의 사물의 참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감각 너머는 없고, 해석들의 연관만 있다는 것이 니체의 관점이다. 상대주의자.

; 해석 유형의 차이 : 어떤 것(무엇)을 해석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해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해석의 밑바닥/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석의 힘인 권력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려는, 그리 해석하려는 힘이나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다. 해석하는 힘의 성격에 따라 권력의지의 가치가 결정된다. 📖

다. 니체의 존재론

-니체의 권력의지 :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역능”으로서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사용하려는 의지. 권력의지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능력으로서의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의 본질은 권력의지이다.

㉠ 주인(= 강자) : 가장 높은 정도의 권력의지. 주인의 의지와 존재방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준거로 판단하며 지배와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 → 권력 행사 = 힘을 주기 + 힘을 발휘하기(창조하기)

㉡ 노예(= 약자) : 가장 낮은 정도의 권력의지. 자기 자신의 힘에서 분리된 자가, 그래서 힘이 없게 된 자가 힘을 얻으려는 의지. 노예의 의지와 존재방식은 지배하기를 욕구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 가치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의욕하는 주체의 의미 부여방식이다. 삶의 방식/존재방식/존재 유형으로부터 가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치는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의 존재 방식이나 유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해석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묻지 않고, 누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

결국 그것의 가장 심오한 의미는 금욕적 이상이 반응적 힘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금욕적 이상은 하나의 의지를 표현한다.> 우리는 반응적 힘들과 권력의지의 형태 사이의 근본적인 결탁(동일성이 아니라, 결탁)의 관념을 재발견한다. 반응적 힘들은 투영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허구들을 조직하는 의지 없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금욕적 이상 속에서의 저 세상의 허구, 그것이 바로 원한과 가책의 방법들에 동반되는 것이며, 삶과 삶 속의 모든 적극적인 것을 비하하게 하는 것이고, 세계에 외관이나 무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세계에 대한 허구는 이미 다른 허구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조건으로서 그것들 속에 제시된다. 반대로, 무의 의지는 반응적 힘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반응적 형태 아래서만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삶이 모순되고, 부인되고 무화되어야만 하는 그 수단으로서 반응적 삶을 필요로 한다. 무의 의지에서 분리된 반응적 힘들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응적 힘들 없이 무의 의지가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욕적 이상의 의미는, 허무주의와 반응적 힘들의 유사성을 표현하고, 허무주의를 반응적 힘들의 동력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다.

니체의 유형학은 <심층들>이나 <동굴들>의 심리학 전체를 이용한다. 특히 반응적 힘들의 승리의 매 순간에 상응하는 메커니즘들은 프로이트주의 전체와 더불어 대결해야만 하는 무의식의 이론을 형성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니체의 개념들에 전적으로 심리학적인 의미를 일치시키는 데 조심한다. 하나의 유형이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인 것만은 아니다. 형이상학과 인식론 자체가 유형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만도 아니다. 니체는 그 유형학을 관통해서 (그에 의하면) 낡은 형이상학과 초월적 비판을 해체하고 인간과 학들에게 새로운 토대를 제공해야만 하는 어떤 철학을 발전시킨다. 즉 계보학적 철학, 말하자면 권력의지의 철학이다. 권력의지를 마치 의지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권력을 원하기라도 하는 듯이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계보학 역시 단순한 심리학의 탄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요약표 참조).

유형	유형의 변형	메커니즘	원리	산물	권력의지의 성질
적극적 유형 : 주 인 (적극적 힘들이 반응적 힘들을 이긴다. 반응적 힘들은 영향을 받는다)	꿈과 만취	삶의 흥분제들, 권력의지의 자극제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예술가	긍정
	의식 : 반응적 힘들이 흥분들에 반응하는 반응 장치의 체계	혼적과 흥분의 구별(혼적들에 대한 기억의 억제)	망각의 능력 (규제적 원리로서)	귀족	
	문화 : 반응적 힘들이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종적 활동	의지의 메커니즘, 고통의 외적 의미, 채무자-채권자 관계의 설정, 부채-책임성	기억력: 발언들(약속들)의 기억(목적론적 원리로서)	주권자-개인, 입법자	
반응적 힘들의 승리					
반응적 유형 : 노예 (반응적 힘들이 적극적 힘들을 이긴다. 그것들은 보다 큰 하나의 힘을 형성함이 없이 승리한다)	원한	위상학적 측면 : 이동(반응적 힘들의 이동)	혼적들의 기억 : 혼적들에 대한 기억의 상승, 흥분과 혼적의 혼동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인간	부정
		유형학적 측면 : 전복(가치들이나 힘들의 관계의 전복)	첫 번째 허구 : 전복된 이미지의 반응적 투영	영원한 비난자(≠ 귀족)	

		위상학적 측면 : 등돌리기(힘 의 내재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분리된 적극적 힘	자신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인간
	가책(내재화)	유형학적 측면 : 방향 전환 (원한의 방향 전환에 의한 고통의 내재 화)	두 번째 허구 : 부채의 반응 적 투영, 문화 의 침해와 무 리들의 형성	유죄인 인간 : 고통, 죄의식-책임 성의 내적 의미
		가책과 원한을 견딜 만한 것 으로 만드는 수단들	세 번째 허구 : 저 세상의 위치	길들여진 인간 : (≠입법자)
	금욕적 이상	무의 의지의 표현		(≠예술가)

『니체와 철학』 (질 들뢰즈 지음, 이경신 옮김, 민음사, 1998년, 254~257쪽)에서

☞ 금욕적 이상의 근원은 무력함이다. 인간의 마지막 의지, 무에 대한 인간의 의지인 허무주의이다. 인간은 무력함을 보상받기 위해 금욕적 이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치의 본질은 권력의지이고, 가치의 목표는 디오니소스, 초인, 즉 자유로운 정신이다.

니체의 권력의지 일원론적 존재론 :

- ① 긍정의 권력의지 : 적극적 유형(주인)-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원리-예술가, 귀족, 주권자
- ② 부정의 권력의지 : 반응적 유형(노예)-혼적들의 기억의 원리-원한자, 양심가책자, 금욕적 이상 추구자

자신의 강렬한 형식 또는 집중된 형식 아래에서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른 권력의지는 탐내는 것도, 심지어는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요, 창조하는 것이다. 짜라투스트라가 말하고 있듯이 권력의지의 진정한 이름은 주기를 실행하는 덕인 것이다. 실제로 가면은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주기와 다른 것이 아니며, 또 가면은 우리에게 유연한 힘으로서의 권력의지, 예술의 가장 높은 능력으로서의 권력의지의 증거를 제공한다. 권력은 이처럼 의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 속에서 원하는 자, 곧 디오니소스인 것이다. (226~227 쪽)

☞

권력의지 : 의지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지 속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3. 니체철학에서 긍정과 부정의 관계 - 허무주의의 극복 방법

비로가 그의 글에서 니체의 원근법주의(관점주의, perspectivisme)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즉 우리가 그 무엇을 위에서 아래로 보느냐 또는 아래에서 위로 보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볼 경우, 권력의지는 곧 긍정, 차이의 긍정, 놀이, 기쁨, 주기, 거리의 창조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볼 경우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서 긍정은 부정

속에서 반성되고 차이는 대립 속에서 반성된다. 왜냐하면 아래로부터 비롯되는 것들만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자신이 아닌 것들과 대립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로와 푸코의 입장이 일치한다. 왜냐하면 푸코는 우리가 해석의 운동으로 시작할 경우 니체에게 있어서 올바른 모든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좋은 모든 것, 고상한 모든 것은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하강하는 독수리의 비행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밑의 바닥들은 그것들이 파헤쳐질 때에만,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운동에 의해 그것들이 꿰뚫어지고 되돌려지며 다시 취해질 때에만 제대로 해석된다. [중략]

뢰비트[1887~1973, 독일의 철학자로서 특히 역사철학과 니체철학을 연구함]는 우리의 이번 모임 전체를 특징짓는 그의 훌륭한 발표를 통해 허무주의의 본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니체에게 허무주의의 극복이 과연 어떻게 세계의 진정한 회복, 새로운 결합, 땅과 신체의 긍정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었다. (227~228쪽)

☞

권력의지 : 의지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지 속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니체의 원근법주의(관점주의, perspectivism) : 삶의 태도·삶의 방식과 해석의 운동 방식

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 :

자기 긍정자 - 모든 코드를 벗어나는 주인. 주권자, 단독자. ‘난 나야.’, ‘난 저들과 달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그래’ → 해석의 하강운동(독수리) : [권력의지 = 긍정, 차이의 긍정, 놀이, 기쁨, 주기, 거리의 창조]

②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태도 :

자기 긍정 불능자. 남 탓하는 사람의 태도로 수동적 반응적 힘의 노예 - 대립과 부정을 통해서만 긍정에 도달(고난 → 승리). ‘난 고생해서 좋은 사람이야.’, ‘재 때문에 재와 나는 달라.’ → 해석의 상승운동() : [긍정은 부정 속에서 반성되고 차이는 대립 속에서 반성된다. → 부정적인 힘을 통해 긍정적인 정신이 된다. 불안, 고통을 통해 환희에 도달한다.]

사실 니체에게 아니오와 예, 부정과 긍정이 지니는 각각의 역할은 다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받은 그의 글에서 예와 아니오의 뜻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양자는 오로지 살아서 체험되고 사유되는 긴장과 모순, 더 나아가 심지어는 사유될 수 없는 긴장과 모순을 통해서만 공존한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보여준 바 있다. 여기에서 받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다수의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또 그가 니체로부터 끄집어내고 새롭게 할 줄 알았던 원근법적인 것들과 관련된 방법을 매우 훌륭하게 다루었다. [중략] 사실 당나귀가 예를 말할 때, 당나귀가 긍정을 하거나 또는 긍정을 한다고 믿을 때, 단지 짐을 진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나귀는 긍정한다는 것은 곧 짐을 지는 것이라고 믿으며, 이때 그는 자기가 하는 긍정의 가치를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의 무게를 따라서 평가한다. 당나귀의 이 같은 긍정과 관련하여 계루는 이번 모임의 서두에서부터 [그의 연설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킨 바 있다. 먼저 당나귀(또는 낙타)는 기독교적 가치의 무게를 졌다가, 그 후 신이 죽었을 때에는 인문주의적 가치, 즉 인간적인-너무나도 인간적인 가치의 무게를 졌으며, 마침내 더 이상 그 어떤 가치도 남지 않게 되자 당나귀는 이제 실재의 무게를 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의 세 단계인 신과 관련된 허무주의, 인간과 관련된 허무주의, 인간의 최후와 관련된 허무주의를 보게 된다-말하자면 누군가가 우리의

등 위에 올려놓은 무게와 관련된 허무주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등 위에 올려놓은 무게와 관련된 허무주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저야 할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에 남겨진 피곤에 지친 우리 근육의 무게와 관련된 허무주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당나귀의 아니오를 목격하기에 이른다. [중략] 결과적으로 당나귀에게 긍정이란 긍정에 대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부정적인 것만이 유일한 실재로 남게 된다.

하지만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예는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짜라투스트라는 긍정함은 짐을 지거나 떠맡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의 짐을 더는 짜라투스트라의 기호, 즉 익살 광대만이 남는다. 여기에서 짜라투스트라는 긍정함이란 당나귀의 그것과 반대로 가볍게 하는 것, 살아 있는 것의 짐을 덜어주는 것, 춤추는 것, 창조하는 것임을 안다. 따라서 짜라투스트라에게는 긍정이 첫 번째의 것이고, 부정은 마치 그것이 긍정의 즐거움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긍정에 봉사하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짜라투스트라-니체는 자신의 작고 동그란 미로 모양의 귀를 당나귀의 길고 뾰족한 귀에 대립시킨다. 왜냐하면 실제로 짜라투스트라의 예가 춤추는 자의 긍정이라면 당나귀의 예는 짐을 지는 자의 긍정이기 때문이며, 또 짜라투스트라의 아니오가 [적극적인] 공격성의 아니오라면 당나귀의 아니오는 [반응적인] 원한의 아니오이기 때문이다.(228~230쪽)

① 노예/약자의 긍정과 부정 → 당나귀(또는 낙타)의 부정 :

<허무주의의 세 단계>

① 신과 관련된 허무주의 : 신이 준 등짐의 피로감

② 인간과 관련된 허무주의 : 인간, 즉 우리 자신이 준 등짐의 피로감

③ 인간의 최후와 관련된 허무주의 : 피곤에 지친 우리 근육의 피로무게감 : 실재의 무게

☞ 당나귀의 긍정 = 부정 : 긍정의 환상이자 부정적인 것만이 유일한 실재

② 주인의 긍정과 부정 : 해석의 유형학

-짜라투스트라의 긍정 운동 :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강 운동 유형 : ‘나는 다르다’라는 차이의 관점에서 보는 방식.

긍정 : 짐을 덜어주는 것

부정 : 긍정에 봉사하는 것 - 적극적인 공격성

-비교) 당나귀의 부정 운동 :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승 운동 유형 - ‘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방식.

긍정 : 예 = 짐을 짊

당나귀 : 의무/ 짐(현실적인 삶) ; 열등한 힘-현실비판

[신의 명령(고중세의 삶) → 인간의 사명(근대의 삶)=인간성 구현] → 자신의 존재화 ; 아무 것도 아님(니힐니즘) = 환상/허위

→짜라투스트라 : 자기 힘의 발휘(미래의 삶/탈근대의 삶) - 우월한 힘으로 미래대안 제시

4. 디오니소스적 긍정으로서의 영원회귀

우선 소크라테스 이전의 기원적인 것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낡은 관념에 해당하는 영원회귀가, 니체가 그것을 자기의 분명한 발견으로서 제시할 때에는 놀랄 만한 혁신으로 바뀐

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로운 것이란 전혀 없는 관념 속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히 영원회귀는 시간의 부정도 아니요, 시간의 제거도 아니며, 또 시간을 초월한 비시간적인 영원성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원회귀가 순환이면서 동시에 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한편으로는 [순환적인] 계속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간적인] 되풀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순환적인] 생성 과정의 계속성을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생성 또는 과정을 탈환하는 것이요, 또 그것에 대한 [순간적인] 번쩍임이자 신비스러운 관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재시작하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강렬한 불씨에로의, 의지의 “원점”에로의 순간적인 회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울러 영원회귀 자체가 한편으로는 [짜라투스트라에게] “커다란 불쾌감”을 야기하는 가장 비탄적인 사유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초인을 부르는 가장 위안적이며 가장 위대한 회복의 사유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30~231쪽)

☞

① **고전적 영원회귀 = 순환** : 모든 것은 전체가 되돌아온다. ‘도망갈 수 없구나’ 이번엔 x, 다음엔 y…… 이런 식으로 영원히 순환한다.

㉠ **질적인 영원회귀** : 물리학적 해석으로서의 영원회귀. 질적인 요소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변형으로서 천상의 별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의 회귀를 질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 예) 사계절의 질적인 순환 운동.

㉡ **외연적인 영원회귀** : 천문학적 해석으로서의 영원회귀. 현세 속의 질들과 사물들의 회귀를 외연의 차원(양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 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천체 운동/별들이 움직이는 지엽적인 순환 운동.

② **니체의 새로운 영원회귀 = 순수 강도적인 것(=칸트의 내포량 : 내적인 힘) = n승** : 생성하는 권력의지의 무한한 반복, 분출.

*칸트의 내포량 : 칸트에게 존재 또는 있음은 술어가 아니라 강도이다. 존재는 지각을 채워야 한다. 경험에서의 감각의 질, 지각을 얼마나 채우냐가 존재의 실재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테면, 지각을 강렬하게 채우면 더 존재하는 것이고, 지각을 약하게 채우면 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영원회귀로 보는 주인과 노예의 차이 :

① **주인** : 1의 n승 = 무한/영원회귀(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존재를 더하는 반복이다). 영원회귀를 의지하는 삶의 형태로, 최상의 삶의 형식을 창조할 수 있다. 예컨대, 단 한 번의 사랑을 영원히 하는 것(순환이자 순간인 경우). 우연한 계기로 우발적 의지로 사랑하되 영원히 되풀이될 것으로 수행한다. 영원히, 즉 아무 때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리라는 의지로, 정언명령처럼 조건에 관계없이 하는 사랑의 방식이다. 이러한 사랑함의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노예** : 반복하지 못하는 힘에의 의지. 예) 조건에 따라 달리하는 사랑, 저급한 형태의 사랑 성공.

한 번과 백 번 또는 한 번과 천 번 사이에는 지적이 가능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 번과 무한 번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한이란 결국 1을 “n제곱한” 것 또는 1에 대응하는 전개된 강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보프레 또한 순수 강도의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존재는 하나의 술어인가? 존재는 더하거나 덜한 어떤 것이 아닌가? 특히 존재는 그 자체가 더함과 덜함이 아닌가? 존재 속에서의 강도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할 이 같은 더함과 덜함, 수준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할 이 같은 존재가 바로 니체에게 있어서의 근본 문제의 대상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토론 중에 종종 니체가 지녔던 자연과학적 취향과 에너지론적 취향에 놀란 바 있다. 실제로 니체는 강도와 관련된 양에 대한 학으로서의 물리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또 그는 더 나아가 “강도상의” 원리로서의 권력의지, 순수 강도의 원리로서의 권력의지를 겨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권력의지란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최후의 역능에 이르기까지 또는 n제곱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리는 것, 간단히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상의 형식(강도의 형식)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클로소프스키가 그의 글에서 권력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변동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변동의 세계 속에서 동일성이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 변동의 세계 속에서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동일성을 지닌 어떤 것으로] 원하는 일은 오로지 각자가 다른 모든 가능성 또한 원할 경우에만 각자가 무수히 많은 “다른 것”이 될 경우에만,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우발적인 순간으로 취해되 이렇게 취해진 우발성 자체가 전체 모든 계열의 필연성을 함축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클로소프스키에 따르면 이러한 변동의 세계는 기호들의 세계이자 의미들의 세계이다. [중략] 이렇게 볼 때, 니체에게 신의 죽음과 자아의 소멸 또한 신의 죽음과 개별적인 동일성의 상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 관계를 드러낸 것은 클로소프스키의 힘이었다. 신은 자아의 유일한 보증이다. 따라서 신이 죽으면 자아는 반드시 증발하여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부터, 즉 신이 죽고 그에 따라 자아의 동일성이 파괴되면서부터 비로소 서로 작용하며 서로 침투하는 변동 또한 강도의 원리로서의 권력의지가 유래하며, 자기의 모든 변화를 거쳐서 되돌아오고 다시 지나가는 변동 또는 강도의 원리로서의 영원회귀가 유래하게 된다. 결국 간단히 말하자면 영원회귀의 세계는 강도로 이루어진 세계, 차이의 세계로서, 그것은 일자나 동일자를 가정하는 세계가 아니라 반대로 동일한 자아의 폐허 위에서, 유일신의 무덤 위에서 건설되는 세계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원회귀 그 자체는 “되돌아옴으로써”만 존재하는 세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합치요, 반복을 통해서만 “같은 것”을 지니는 세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동일성이라 할 수 있다. (233~235쪽)

☛ **영원회귀하는 권력의지 : 한 순간에 올인하는 것. 강렬한 변동 속에서 다르게 되돌오는 삶.**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되기. 무수히 많은 다른 것으로 되기. 영원회귀로 살기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매순간 올인하면서 사는 삶,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회귀를 감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언명령의 형식을 취해 행동할 경우 과거의 계열이 현재의 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영원회귀의 시도가 과거의 계열적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영원회귀는 순환이 아니다. 그것은 일자, 동일자, 동등한 것 또는 균형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의 회귀가 아니며, 또 동일자의 회귀도, 동일자로의 회귀도 아니다. 따라서 영원회귀는 고대의 [순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된 사유와는 전혀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다. 즉 영원회귀는 전체를 되돌아오게 하는, 균형을 설정함으로써 재통과하는, 전체를 일자에게로 다시 가져오는, 동일자에게로 되돌아오는 그런 순환의 사유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순환의 사유야말로 “상투적인 말” 또는 “단순화”이다. 즉 그것은 물리적인 변형으로서의 영원회귀 또는 천문학적 운동으로서의 영원회귀-말하자면 동물의 자연적인 확신으로 체험되는 영원회귀(난쟁이 또는 짜라투스트라의 동물들이 보았던 영원회귀)인 것이다. [중략] 영원회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선별적이기 때문에 결코 전체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짜라투스트라의 두 순간 사이에, 즉 병든 짜라투스트라와 회복기의 짜라투스트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중략]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참을 수 없어 했던 것을 이제는 그가 참기로 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짜라투스트라가 보여주는 변화는 단순하게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회귀 자체에 대한 이해 속에 일어난 “드라마틱한” 진보이기 때문이다. 짜라투스트라를 병들게 했던 것은 영원회귀가 궁극적으로 순환과 연계되어 있다는 관념, 그리하여 영원회귀가 모든 것을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관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되돌아올 것이며, 심지어는 인간, “작은 인간”…… 등까지도 되돌아올 것이라는 관념이었다.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인간에 대한 그 커다란 불쾌감, 나의 목구멍 속으로 밀고 들어와 나를 질식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점쟁이가 한 다음과 같은 예언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체는 동등하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가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영원회귀, 바로 이 영원회귀가 모든 실존에 대해 내가 그토록 무기력했던 원인이었다.” 따라서 짜라투스트라가 회복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영원회귀란 이런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영원회귀 속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과 선별을 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영원회귀의 진정한 이유는 동등하지 않은 것,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되돌아오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동등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영원회귀는 오로지 생성을 통해서만, 오로지 다수를 통해서만 이야기된다. 그것은 존재, 합치, 동일성이 배제된 세계의 법칙인 것이다. 일자나 동일자를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영원회귀는 그 모습 그대로의 다수와 유일한 합치를 이루며, 차이를 낳는 것과 유일한 동일성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기만이 생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로서의 영원회귀가 하는 기능은 결코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성, 다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피비트, 발, 클로소프스키가 그들의 글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회귀가 지니는 선별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예견토록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영원회귀가 지니는 선별적인 의미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영원회귀는 우선 사유 속에서 선별적이다. 왜냐하면 영원회귀는 “어정쩡한 의도들”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영원회귀는 이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넘어서는 유효한 규칙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칸트의 규칙과 비슷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공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 간에, 동시에 그것의 영원회귀를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원하라…… 이리하여 이제 [그것의 “영원회귀”를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한 번, 오로지 딱 한 번”의 조건으로 내가 느끼고 행하며 원하는 모든 것은 소멸되며 사라지고 만다. 즉 자기 자신의 영원회귀를 원할 비접합 또는 천함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

고 탐구된 적이 없는 [영원회귀와 관련된] 형식들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중략] 즉 [영원회귀와 관련된] 극단적 형식들은 영원회귀라는 시련에 앞서서 결코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회귀란 그 자체가 곧 시련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회귀를 사건들 자체와 더불어서 또는 일어나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해해야만 한다. 불행, 질병, 광기, 심지어는 죽음에로의 접근까지, 이 모두는 분명히 두 측면을 지닌다. 즉 이것들은 한 측면을 통해서 는 나를 나의 역능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다른 한 측면을 통해서 는 그 자체가 탐험을 위한 가공스러운 영역이면서 동시에 위협스러운 탐험의 수단이기도 한 그런 기이한 역능을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것 속에서 영원회귀가 하는 기능이란 이처럼 중간의 형식들로부터 최상의 형식들을 분리해내는 일, 온화한 지역들로부터 몹시 덥거나 몹시 추운 지역들을 분리해내는 일, 절제된 상태들로부터 극단적인 역능들을 분리해내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분리해내다” 도는 “뽑아내다”라는 표현마저도 사실 충분한 어휘들이 못 된다. 왜냐하면 영원회귀는 언제나 최상의 형식들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회귀가 곧 권력의지의 도구요 표현인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영원회귀는 각각의 것을 그들 자신의 최상의 형식으로, 즉 **n제곱**으로 올려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적인 선별은 영원회귀의 사유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존재가 선별적이 되며, 또 존재 그 자체가 선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원회귀는 시련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다. 즉 사유 속에서의 어정쩡한 의도들뿐만 아니라 존재 속에서의 어정쩡한 역능들까지도 모두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중략] 만약 우리가 영원회귀를 바퀴의 운동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퀴로 하여금 시련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바퀴에게 너무 약하고 절제된 모든 것은 폭발시켜 제거해버리는 원심력 운동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영원회귀가 낳는 것, 영원회귀가 권력의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상의 형식”으로 정의된 초인(超人, Surhomme)이다. 이렇게 정의된 초인 속에서 우리는 랭보가 말한 바 있는 “인류로 가득 차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가득 찬” 시인, 모든 것 속에서 최상의 형식과 극단의 역능만을 소유한 시인과의 유사성을 본다. 그 어디에서나 영원회귀는 증명을 한다. 즉 영원회귀는 같은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들을, 가면들과 역할들을, 형식들과 역능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237~242쪽)

<순환과 영원회귀의 차이>

-순환 : 전체, 즉 모든 것이 되돌아옴

-영원회귀 : 선별 - 돌아올 만한 것만 돌아온다.

유일한 것 : 단 한 번. 예) 이것만이 유일한 사랑. 이것만 할 수 있을 경우에만 다시 반복할 수 있다. 언제든 일어나거나 반복가능하면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다. 결국 영원회귀가 낳는 것은 최상의 존재형식인 초인이다.

㉠ 사유에서의 영원회귀 :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영원회귀를 의지하는 행위

㉡ 존재에서의 영원회귀 : 시련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의도들과 역능들을 제거하여 선별하는 존재가 되고, 존재 자체의 선별이 이루어진다.

☞ 영원회귀와 시련의 관계 :

역능의 분리 : ‘시련, 장애물 때문에 안 돼.’ 조건에 따른 것-역능의 중간형식 ; 기존 가치의 인정

+ 역능의 부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거야.’ 무조건 하는 것-역능의 최상의 형식. 영원회귀

의 수레바퀴를 이겨낸 사람이 비로 초인 ; 선별된 것들만 돌아온다, 새로운 가치 창조자로서의 초인이 된다.

5. 니체 철학의 가치

-니체의 상대주의 : 역사-상부적인 바탕에 근거한 창조하기

따라서 비로가 그의 글에서, 니체에 따르면 극단적인 형식들과 중간의 형식들 사이에 일종의 본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상기시킨 것은 옳았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의 차이는 새로운 가치들의 창조와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인정 사이에 니체가 행한 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가 니체가 행한 이 같은 구분을 역사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원근법적인 것 속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정된 기존의 가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고유의 시기에는 그들 또한 새로운 가치들이었을 터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새로운 가치들 역시 언젠가는 기존의 가치들로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이 본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권력의지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본 바 있다. “통용되고 있는 가치들을 스스로에 부여하는 것”과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하는 것” 사이에는 본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본성의 차이가 바로 영원회귀의 차이 자체이며, 영원회귀의 본질을 구성하는 바로 그 차이이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가치들이란 정확히 말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상의 형식들과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미 세워진 기존의 상태로 태어나는 가치들, 그리고 비록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유리한 역사적 조건들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정의 질서를 추구함으로써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반시대적이며 그들의 창조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인 가치들, 그리고 겉으로 보아 한 사회에 의해 인정되고 동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때마저도 실제로는 다른 힘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사회 자체 속에서 또 다른 본성의 아나키적 역능들을 추구하는 가치들 또한 존재한다. 오로지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만이 역사를 넘어서는 가치들이 역사-상부적인 가치들이며 오로지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만이 기막힌 혼돈을 증명하고 또 그 어떤 자리로도 환원이 불가능한 창조적인 무질서를 증명한다. 니체가 그것은 영원회귀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회귀 그 자체라고 말한 것, 그것이 바로 혼돈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창조들은 역사-상부적인 바탕으로부터 “반시대적인” 혼돈으로부터 시작하며, 또 이렇게 시작된 위대한 창조들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의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나아간다.

보프레가 그의 글에서 특별히 가치의 개념을 문제 삼으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존재론의 성립 조건이라 할 이 같은 역사-상부적인 바탕을 드러내게 되는지를 자문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바티모가 니체에게 있어서 가치들의 창조로 하여금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즉 혼돈스러운 깊이와 그것의 실존을 주목하였던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였다. [중략] 예를 들어 푸코가 그의 글에서 서로 간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니체를 프로이트 및 맑스와 대조하였을 때, 그는 이 세 사상가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가정된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인지”를 논의 주제로 삼지 않고자 각별히 주의하였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푸코는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발견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역사-상부적인 바탕 또는 혼돈스러운 깊이]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그는 해석의 요구 속에 자리잡은 근본적인 변화에, 세계와 인간의 “광기”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는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오히려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발견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략] 사상가들이 서로 간에 끼친 영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도대체 어떻게 연대기의 차원이나 역사의 차원이 아닌 (물론 영원성의 척도도 아닌, 왜냐하면 니체는 영원성의 차원에 맞서서 반시대적인 것의 차원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차원 속에서 어떤 한 사상가가 자신과 다른 사상가들과 만날 수 있으며 또 그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중략] 한편 우리는 니체는 아마도 깊이 있는 연극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연극의 철학(디오니소스)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 자체 속에 연극을 도입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철학을 변형시키는 표현의 새로운 수단들이 연극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니체의 경구가 그것이 마치 연극 연출가의 원칙이나 평가인 것처럼 이해되어야 하는지 모른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 전체를 구상하는 것은 철학 속에서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는 바그너식의 연극에 대한 조롱을 계획하면서, 비제의 음악으로 공연 중인 짜라투스트라를 꿈꾼다. 그 자체가 이미 잔인함의 연극이자 권력의지의 연극이요 영원회귀의 연극인 “자기 자신의” 철학적인 연극을 위하여 마치 가면을 꿈꾸듯이 니체는 연극의 음악을 꿈꾸는 것이다. (242~245쪽)

1.5

인식 정도의 상대성을 말하는 역사적 상대주의가 아니다. 니체의 상대주의는 역사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기존 가치 인정의 선택 방식과 새로운 가치 창조의 선택 방식의 차이라는 상대성이다.

역사를 넘어서는 가치들이 바로 역사-상부적인 가치들이다. 창조적 무질서는 영원회귀 자체로서 역사적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바탕이다. 역사상부적인 바탕은 존재론의 성립 조건이고, 이는 새로운 가치(권력의지의 실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푸코는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발견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역사-상부적인 바탕 또는 혼돈스러운 깊이]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그는 해석의 요구 속에 자리잡은 근본적인 변화에, 세계와 인간의 “광기”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는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오히려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발견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